

우리말 우리글이 바로 서는 국어교육의 새 길을 여는 사람들!



전국국어교사모임

수신자 전국 중·고등학교장

(경유)

제목 연수 참여 협조 요청

-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 모임이 주최하는 연수에 귀교 선생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연수명: 전국국어교사모임 겨울연수 '설레는 건 많을수록 좋아'

나. 기간: 2023. 1. 27.(금)~29.(일)

다. 장소: 충남 공주시 공주교육대학교, 제민천 일대

라. 연수종별: 자율연수(특수분야직무연수 아님)

마. 이수시간: 11시간

바. 연수비(교재비 1만5천원 별도)

• 정회원: 숙박 24만원/비숙박 18만원

• 일반회원: 숙박 26만원/비숙박 20만원

사. 주최: (사)전국국어교사모임

붙임. 연수 안내문 1부. 끝.

(사) 전국국어교사모임 이사장



담당자 강훈

연수구장 김영희

사무총장 강양희

이사장 안병만

협조자

시행 전국모 2022-35 (2022. 12. 6.)

접수 (. . .)

우 0303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7길 20 <http://www.naramal.or.kr>

전화 02-744-3426

팩스 02-2269-3428

E-mail uri-mal@hanmail.net

2023년 전국국어교사모임 겨울 연수

🍊 실례는 건 많을수록 좋아 🍊

■언제 2023.01.27.(금)-29(일)

■어디에서 공주시 제민천 일대

(연수국은 연수 장소도 그냥 정하지 않죠! 지방 소멸의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선생님이 많으실 텐데요. 학생들에게 “서울로 가라”고 말하기에도, “이곳에서 살자”고 말하기에도 난감하다는 생각을 종종 해보셨지요. 공주의 제민천 일대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지역 주민의 교류의 장, 청년들의 상상력이 직접 실현되는 팝업 공간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요. 제민천에서 보내는 2박 3일은 선생님들께 지방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출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리라 믿어요. 앗, 3일차에는 제민천에 변화를 가져온 ‘퍼즐랩’ 권오상 대표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모집 인원 116명(10명*10개 분반, 16명*1개 분반)

■일정

	1.27.(금)	1.28.(토)	1.29.(일)
오전 1 09:00 -10:30		반별 강의 1 - 진행: 강사 - 장소 :숙소 커뮤니티 룸 & 카페	반별 강의4 - 진행: 강사 - 장소 : 공주교대 강의실
오전 2 10:50 -12:20		반별 강의 2 - 진행: 강사 - 장소 :숙소 커뮤니티 룸 & 카페	특강 11:00-12:00 지역에서 ‘새롭게’ 살아가기 (‘퍼즐랩’ 대표 권오상) - 장소 : 공주교대 대회의실
점심밥 12:20 -14:00	접수 13:30-14:00		안녕 12:00-12:30 작별 인사 나누기 (연수국) - 장소 : 공주교대 대회의실
오후 14:00 -17:00	전체 강의 14:00-16:00 검색이 만남을 대체한 시대에 서사를 가르치기 (사회학자 엄기호) - 장소 : 공주대학교 대회의실	낮잠과 산책 14:00-15:30	
	총회 16:00-17:30	반별 강의 3 - 진행: 강사 - 장소 :숙소 커뮤니티 룸 & 카페	
저녁밥 17:00 -18:30	환대의 시간 17:30~ 내가 사는 곳의 전국모 선생님들을 만나 응원을 주고 받는 시간! - 진행 : 전국모 지역 모임 - 장소 : 맛집 * 5분반은 별도 강의 운영		
저녁 18:30 -20:00		수업 대화 내 수업 이야기 - 진행: 각반 도우미 - 장소 :숙소 커뮤니티 룸 & 카페	

■연수 열개

- 주제별 총 11개의 분과가 운영됩니다.
- 1~2명의 강사와 10명 내외의 수강생이 오래 마주하고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 스터디와 연수가 결합된 형태의 공부 자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진행된 월례 연수를 통해 연수국원들은 ‘듣고 가는’ 수업이 아닌 ‘자기화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연수가 수강생의 사고와 일상을 바꾸어 놓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특징을 전격 도입한 것이 이번 겨울 연수!
- 수강생은 강사가 제시한 주제 도서를 미리 읽고 연수에 참여합니다. 연수는 대화와 토의, 질의응답,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부를 통해 더 멋져질 자신이, 기대되지요♥
- 연수국이 목표하는 바는,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일상 속에 촘촘히 배치하는 일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예요. 더 나아지기 위해 매일 조금씩 기울이는 노력이 결국 일상을 견디게 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동료와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만남을 그리워하신 분들이 많으셨지요. 1일차 저녁에는 지역모임의 선생님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환대를 꼭 경험해보세요 :)

■연수비 숙박 24만원 / 비숙박 18만원

(숙박을 적극 추천드려요. 깊은 밤, 이른 새벽에 제민천을 걸어보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또 엄청 멋진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섭외해 두었다구요. 호호.)

■중요한 참고사항

- 불필요한 자원의 사용을 막기 위해 **연수 자료집은 필요한 분들의 숫자만큼 인쇄하여 별도 판매합니다(15,000원).** 자료집 파일은 PDF로 공유될 예정이니, 종이책을 구입하지 않는 분들은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강사 및 강의 개요

항목	주제	강사	수강생 수	도우미
1일차	검색이 만남을 대체한 시대에 서사를 가르치기	엄기호 (사회학자)	전체	-
2~3일차	[분반 1] 이야기 교육	최시한 김미숙 김미순 박영수	10명	김영희
	[분반 2] 글쓰기 수업	송동철 김현숙	10명	김현숙
	[분반 3] 그림책 수업	호민애 고은정 권주영 정유정	10명	김소진
	[분반 4] 다양하고 매력적인 수업	김선산 김형태 이연화 민재식	10명	김민주

	[분반 5] 매체 수업	이귀영 이수빈 장보람 장은주 최동민	10명	김수연
	[분반 6] 구술평가	송승훈	16명	-
	[분반 7] 회지 공부	김미향 박유미 배초록	10명	-
	[분반 8] 환경/실천 수업	김기훈 양소정	10명	강혜원
	[분반 9] 소설 수업	이동진 이수빈	10명	조인혜
	[분반 10] 시 수업	김애연 윤재오	10명	윤재오
	[분반 11] 화법 수업	김중수	10명	박정현
3일차	지역에서 '새롭게' 살아가기	권오상 (퍼즐랩 대표)	전체	-

■ 강의 소개

분반	강사	강의 소개	미리 읽어 올 교재
[분반 1] 이야기 교육	최시한 김미숙 김미순 박영수	<p>강의 1 김미숙 -이야기 교육 방안 찾기 (지정 교재에 대한 독서토론을 바탕으로 현장 이야기 교육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대화를 나눕니다.)</p> <p>강의 2 김미순 -이야기 수업 사례 (현장에서 실천한 이야기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각자가 문학 또는 화법 수업에서 이야기 수업과 유사한 수업을 이미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수업을 이야기 수업으로 발전시켜 볼 방안을 함께 생각합니다.)</p> <p>강의 3 박영수 -이야기 짓기 실습 (현장에서 학생들과 실천한 활동지를 바탕으로 교사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연수생들의 이야기 한마당을 펼쳐 봅니다.)</p> <p>강의 4 최시한 -이야기 교육을 하는 뜻 (이야기 교육에 대한 개론 성격의 이야기를 최시한 교수님 강의로 풀어냅니다.)</p>	최시한, 《콘텐츠창작과 스토리텔링 교육》
[분반 2] 글쓰기 수업	송동철 김현숙	<p>강의 1~3 송동철 - 억울함 없는 수행평가, 성장을 돕는 피드백 (아이들은 유독 수행평가에서만 '어디에서 깎였</p>	

		<p>는지'를 궁금해합니다. 평가 원망은 학생의 배움을 방해할 뿐 아니라 때로는 교사의 마음까지도 움츠러 들게 하지요. 아이들 마음을 살피가며 배움이 일어나는 수행평가를 꾸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실습을 통해 글쓰기 수업의 가장 큰 고민인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을 익힙니다.)</p> <p>강의 4 김현숙 - 글을 읽고 스스로 주제 찾아 글쓰기 (국어 시간에만 할 수 있는 수업이 들말읽쓰 통합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글을 읽고 질문을 하고 토론하고 글쓰는 수업을 했던 경험을 나눕니다.)</p>	
[분반 3] 그림책 수업	호민애 고은정 권주영 정유정	<p>그림책이라는 예술장르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삶을 생각해보고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서울국어 교사모임 소모임으로 모여 선생님들도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자서전을 썼습니다. 소모임에서 자서전을 쓰신 선생님들과 수업에 적용하신 선생님들의 수업과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p> <p>강의 1,2에서는 그림책 <나>를 읽으며 그림책과 자서전을 연결고리를 생각해보고 글쓰기와 비주얼씹킹 실습을 합니다. 그림책 <나>는 판형이 독특한 책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호민애 선생님 진행).</p> <p>강의 3에서는 호민애 선생님이 소모임과 학생들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자서전 커리큘럼을 나눈 뒤 정유정 선생님의 실천 사례를 듣고</p> <p>강의 4에서는 권주영, 고은정 선생님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수업 사례를 나눕니다. 직접 자서전을 쓰고 그것을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한 이야기,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국어 수업에 적용했던 그림책과 수업 사례를 나눕니다.</p>	조수경, 《나》
[분반 4] 다양하고 매력적인 수업	김선산 김형태 이연화 민재식	<p>경기국어교사모임에서 2022년 꾸준히 진행한 수업나눔 중 특히 호응이 좋았던 수업사례들을 모아 준비했습니다.</p> <p>강의 1 김선산, 얼렁뚱땅 손 안 대고 코 푸는 수업 (공책 수업으로 학습지 없이 1년을 버티는 방법)</p> <p>강의 2 김형태, 기묘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화 재창작 (우리 신화를 읽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창작하기)</p> <p>강의 3 이연화, 청소년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및 법률 제안하기 (독서 시간에 헌법 읽고 정책제안서와 법률 개정안 쓰기)</p> <p>강의 4 민재식, 알고보면 수월한 서술형 평가 (서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자유롭게 수업 하기)</p>	신동훈, 《우리 신화 상상 여행》
[분반 5] 매체 수업	이귀영 이수빈	<p>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매체 영역이 생겨서 걱정이 되신다구요~? 수업시간에 매체 영역을 가르칠 생각을 하니 막막하시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아</p>	1. 전국국어교사모 임 편집국, 《함께 여는

	장보람 장은주 최동민	<p>를 꾸려왔습니다! 2023년에는 매체 수업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는 시간들을 함께 꾸려나가요!</p> <p>※ 5분반은 1일차 저녁 지역모임과 함께하는 “환대의 시간”에 별도 강의를 운영합니다.</p> <p>강의 1 이수빈 (전국국어교사모임 회지 2021년 여름호 '매체 특집'을 읽고 매체 수업에서의 경험과 어려움을 나눕니다.)</p> <p>강의 2 장은주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를 함께 읽으며 매체 영역의 교육 내용, 방법/핵심개념을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p> <p>강의 3 장보람, 매체 비평과 탐구 ① (학생의 미디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 및 청소년의 미디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매체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공간의 명과 암을 파헤쳐봅시다!)</p> <p>강의 4 최동민, 매체 비평과 탐구 ② (유튜브, 웹툰, 광고, 뉴스 비평 수업 사례들 중 의미있었던 것들을 뽑아 아낌 없이 나눠드립니다!)</p> <p>강의 5 이귀영 (연수 기간 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체 수업을 직접 제작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수업에 적용 가능한 자원을 만들어봐요!)</p>	국어교육》 2021년도 여름호 2.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
[분반 6] 구술 평가	송승훈	<p>강의 1~4 구술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시집, 소설책, 사회과학 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구술평가 문제, 학생에게 구술평가를 준비하게 하는 지도법, 채점기준과 채점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같은 학년을 교사 3명이 가르칠 때 교사 간 채점기준의 적용 차이 해결법, 학생의 말하기 불안 해결법, 민원 예방과 대처법도 이야기합니다. 이 연수에 참여하고 나면, 구술평가를 자기 수업에서 실제 쓸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늘어나고, 인구 감소로 한 학교의 국어교사 수가 줄어드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교사 한 사람이 가르치는 과목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구술평가는 교사의 힘을 적게 들게 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p>	아래의 시집, 소설책으로 구술평가 실습함. - 안도현 시집을 아무 책이나 한 권 읽어오기 - 김애란의 단편소설 <건너편>을 읽어오기
[분반 7] 회지 공부	김미향 박유미 배초록	<p>강의 1~4 국어교사의 자랑 <함께 여는 국어교육>, 정말 좋은 책인데 하면서 쌓아두진 않았셨나요? 이번 겨울에 편집위원들과 함께 읽어요. 회지를 읽고 서로 이야기하는 다정하고도 지적인 시간이 기다립니다. 회지 읽기로 고민과 용기를 나누다 보면 내년도 수업 계획도 금방 이랍니다. 회지에는 멋진 수업 아이디어가 넘쳐나거든요. 회지 읽기 모임을 꾸려 따뜻한 동료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p>	전국국어교사모임 편집국, 《함께여는 국어교육》

<p>[분반 8] 환경 /실천</p>	<p>김기훈 양소정</p>	<p>강의 1~3 김기훈, 기후 위기 시대의 교육 (기후 위기를 알게 된 후 시민이자 교사로서 느낀 두려움, 슬픔, 분노, 책임감, 기대, 수업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주제 도서에 대한 토론, 수업 사례(한 권 읽기, 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창체 등) 나눔, 서로 돌보기(재연결 작업)을 한 후, 학생들과 함께 읽을 만한 단편소설로 비경쟁독서토론으로 마무리(?)합니다. 더 많은 기후정의수업이 열려 우리들이 함께 사는 세계가 더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고치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p> <p>강의 4 양소정, 질문하며 읽는 인간 기르기 (고3 학생들과 책 잘 읽는 방법, 질문하며 읽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주제 탐구 독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질문을 품고 읽기, 질문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쓰고 발표하기를 했습니다. 저의 수업을 단서로 삼아 직접 질문해 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질문하며 살아가게 하는 수업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아요.)</p>	<p>이재영 외, 《서로를 살리는 기후위기 교육》</p>
<p>[분반 9] 소설</p>	<p>이동진 이수빈</p>	<p>강의 1~3 이동진, 단편소설로 수업하기 - 수업시간에 단편소설을 활용했던 사례를 나눕니다. 작품 선정-읽기-비경쟁독서토론-서평쓰기 과정을 살펴봅니다. 소설로 비경쟁독서토론 실습도 해봅니다. 연수장소가 카페이기 때문에 최진영 작가의 '오늘의 커피'를 주제 도서로 정했습니다.</p> <p>강의 4 이수빈,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프로젝트 수업 (전국모 연수와 스터디에서 공부한 내용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엮어낸 과정을 나눕니다. 비경쟁 독서토론을 비롯한 소설 읽기 전-중-후 활동, 이야기와 게임으로 엮어낸 문법 활동 등 학생 개개인이 주인공이 되어 즐겁게 수업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p>	<p>최진영, 《겨울방학》</p>
<p>[분반 10] 시</p>	<p>김애연 윤재오</p>	<p>강의 1,4 김애연, 시집 대화와 구술평가 (시와 친해지고 싶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시의 재미와 감동을 알려주고 싶은 선생님들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으로 '시집 읽고 대화하기'를 소개합니다. 직접 시를 읽고 대화를 나누고 '클로바 노트' 앱으로 대화 기록을 해봅니다. 시집 읽고 대화하기의 구체적인 수업 흐름과 방법, 피드백과 평가 고민을 나눕니다. <시 읽는 법>을 읽고 구술평가 실습도 해봅니다. 시집 수업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구술평가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p> <p>강의 2,3 윤재오, 시 창작과 공유 (시는 어렵지만 시를 낭송하고, 배우고, 짓는 시간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시친구들을 좋아하고요. 내가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창작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지식이 아니라 동료들과 책에 빚진 수업입니다. 단어를 채집하고, 낱선 시적 표현을 만들고, 사물을 관찰하고, 노래에서 시를 찾은 다음, 사회의 이야기를 시로 풀어</p>	<p>김이경, 《시 읽는 법》</p>

		보았습니다. 우당탕탕 시수업에 첫삽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제 경험과 선생님들의 고민을 귀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분반 11] 화법	김중수	강의 1~4 학교에서 가장 깐깐한 교사로 소문나면서도 동시에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관리자나 학부모를 만나도 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위기가 아니라 관계 개선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괴로움, 슬픔, 분노,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특히 학교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한 방법을 깨닫고, 배우고, 사용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김중수, 《교사를 위한 대화법》

■ 숙소 정보

숙소명	숙소 정보
하루한옥	https://site.onda.me/122996
달빛 정원	http://www.mghouse.kr/
고마 게스트하우스	http://gomahouse.co.kr/
공산성 게스트하우스	http://gongsanseong.com/
공주 하숙마을	https://hasuk.gongju.go.kr/main.do
홍취관 한옥숙박체험관	http://www.hongwhikwan.kr/
봉황재 한옥	https://blog.naver.com/bonghwangjae
<p>숙박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신청시'비숙박'을 눌러주세요. 숙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연수비는 18만원입니다. 근데 숙소가 진짜 멋져요(소근소근)</p>	